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10월은 개인과 교회의 신앙갱신의 달입니다.  
공동체생활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일(일) 세계성찬주일.(성찬식. 세례식)  
06일(금) 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  
08일(일)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10일(화)-13일(금) 멋쟁이학교 테마여행  
15일(일) 기독교교육주일.(특강: 권혁신목사)/ 공동체운영위원회  
16일(월)-21일(토)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회  
17일(화) 평양노회 정기회의(제199회. 성암교회)  
22일(일)-27일(토) 어린이학교 도보여행  
24일(화)-27일(금) 꾸러기학교 졸업여행  
24일(화)-31일(화) 대만 임자내교회 건물 보수작업  
29일(일) 종교개혁기념주일.(특강: 박진용목사)
- 수재구호금과 총회 헌금을 각각 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 김지현집사 가정에서 28일(목)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 9일(월)에 김성기집사와 백은지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식장소는 아펠가모 공덕 7층,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사랑방 (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강단을 꽃으로 :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0 호

2023년 10월 1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요르단에서 온 선교편지

샬롬~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 소식 전하며 추석 인사도 드립니다. 올해도 선하신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자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시길 기원드립니다.



1.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의 OMSC(해외사역연구소)에서 난민 선교에 대해 연구하며 안식년 프로그램을 잘 마쳤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7개국에서 모인 12명의 선교 동역자들이 두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었으며,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 되길 기도합니다.



3. 요르단 복귀 후 팀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국, 브라질, 홍콩, 한국에서 이곳으로 모인 저희가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다시 심방을 하며 난민 가정들의 형편을 살펴봅니다. 압둘라흐만씨 가정의 기도 제목은 압둘라흐만씨가 가족들을 유럽으로 데리고 가려고 자신이 먼저 유럽으로 밀항하려다 경찰에 잡혀서 모로코 감옥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5. 파티마 자매님 가정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 건강과 아이들 양육을 위한 부족한 재정들이 잘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귀하는 저에게 몇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예배자로, 사역자로, 좋은 이웃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복된 추석 명절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샬롬샬롬~ 요르단 암만에서 임 목사와 가족들 드립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임채정 목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  
<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90 / 365

기도 :

성경 : 고린도전서 10장

제목 :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1. 내용: 교만하지 말고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What)

<문단구분>

1~13절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으셨다>

14~22절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23~33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2. 의미: 이스라엘의 실수를 좇지 말아라. (Why)

1) 악을 좋아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

2) 특히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3)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3. 적용: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How)

1)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2) 교만은 자기 마음을 섬기는 우상숭배이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자.

## 오빠의 결혼

지금 저희 집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오빠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빠와 저는 여섯 살 차이가 나고, 이레와 오빠는 아홉 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빠와는 한 번도 같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가 14살이 되던 해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20살이 되던 해엔 경상북도 포항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방학에만 만났고 서로가 겪고 있는 삶의 시기와 고민들이 너무 달랐습니다. 사랑방교회가 저희 가족들을 모이게 하는 유일한 사랑방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유년 시절에 행복과 웃음과 사랑이 물들 수 있도록 사랑방공동체가 존재해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미취학 아동 한정으로만 볼 수 있었던 김성기 군의 앞니 만개한 찐 웃음이 늘어나고, 공식 인터뷰 같던 오빠의 대화가 수다스러워지더군요. 지금의 새언니 덕분입니다. 사랑의 힘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두 사람의 연애 초반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인지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간 가졌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의 뜻대로 겸손히 함께 걸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이레는 우리 집에도 사랑해줄 베이비가 필요하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ㅎㅎ 우리의 온 사랑을 쏟아줄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이 세상에 생기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ㅎㅎ

끝으로 저희 가족들이 결혼식을 잘 준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1. 은혜와 감동의 가나 혼인 잔치가 되길 - 순서 맡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세밀하게 도와주시길 2. 오시는 손님들이 행복하고 흐뭇한 미소를 선물로 가지고 돌아가시길 3. 두 교단을 상징하는 가문의 만남을 통해 비밀한 주님의 뜻 이루시길 4. 한국 개신교 140년 역사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가정의 탄생을 통해 “주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이로움”을 이루어 가시길

Ps. 김병우 집사님 휴대폰 배경화면은 저와 이레가 빠진 언니와 오빠의 상견례 사진이더군요.

젊은이사랑방 김예지 청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잠언 15 : 15  
2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5 : 2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93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더 좋은 고향을 그리워하십시오"

히브리서 11 : 13-16

설교자

455 디아코니아사랑방

정태일 목사  
< 성 찬 식 >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4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이용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 더 좋은 고향을 그리워하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향을 찾는다. <13>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길손과 나그네는 떠난 사람, 돌아가야 할 사람, 지금은 주어진 기간 동안의 과정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4>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고향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더 좋은 고향을 그리워하라. 고향을 떠난 사람은 동지를 떠난 새와 같아서, 정서적 안정과 만족, 인격적 성숙과 삶의 안정을 위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 좋은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라고 권면합니다.<15-16>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관계의 스토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고향을 그리워하십시오. 세상에서 고향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현대인에게 세상의 고향은 불완전합니다. 고향이 없거나, 고향이 있어도 가족관계의 스토리가 부족합니다. 더 좋은 고향, 하늘의 고향을 간절하게 그리워하십시오. 하늘의 고향은 세상에 있는 고향의 불완전한 것을 보완해 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오래 추억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성기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꾸러기들이 추석이 오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송편 만들기입니다. 꾸러기들이 송편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솔잎 따기입니다. 뽀족뽀족한 솔잎을 따고 끝에 껍질을 벗겨서 모으면 송편을 찰 때 찜통에 깔게 됩니다. 송진도 좀 묻고, 30분 동안 하면서 쪄서서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음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5가지의 소로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깨설탕부터 콩, 밤, 건포도, 팔가루까지 다양한 송편에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러기 송편은 보통 송편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2가지 이상의 소를 섞은 송편이 있다는 것과 아주 예쁜 모양에 송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토끼 송편도 만들고, 공 송편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든 송편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어린이학교, 멧쟁이학교, 식사준비를 해주신 부모님들, 사무실 식구들에게 나눠드리고, 꾸러기 간식을 제외한 송편은 집에 가족들과 나눠먹게 가져갔습니다. 간식 시간에 본인들이 만든 송편과 식혜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수업의 첫 시간, 월요일 1교시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여는 모임이 끝나면 모두 동그라미로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대로 의자를 가져오기도 하며 성경과 찬양집을 챙깁니다. 어린이학교 예배 인도와 대표기도는 어린이들이 직접 합니다. 이번 순서가 된 어린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찬양곡과 예배 순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자리정돈이 끝나고 모두 자리에 앉으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어린이들의 찬양소리는 해맑은 어린이 모습만큼이나 맑게 공동체학교를 울리며 퍼져나갑니다.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들의 기도제목도 나눕니다. 가족의 건강을 이야기 하는 어린이도 있고 자기 마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부터 종전을 위한 기도제목도 함께 나눠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린이들이 믿음안에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해 주세요!

그리고 각 부서로는 놀잇감 정리부, 시설관리부, 체육부가 있습니다. 부장은 5학년이 담당합니다. 3학년 이상은 부서활동이 의무지만 저학년은 부서활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 교사 : 권재만 >

### 멧쟁이학교

일교차가 널뛰다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싸늘해져서 그런지, 기운이 팔팔한 멧쟁이들을 제외하곤 한 두 겹씩 걸쳐입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말미에 있었기 때문에, 멧쟁이들은 수요일 오후에 일찍 귀가하길 손꼽아 기다린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기가 한 주 앞으로 꺾충 다가온 선교바자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멧쟁이 나름대로의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해야 손님들(어른, 어린이, 꾸러기)이 즐거워할지를 머릴 맞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자기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 떠날 테마여행의 준비도 한창입니다. 테마에 걸맞는 장소를 물색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교통수단까지 찾아보며 준비하는 고학년들의 모습들은 이미 여행의 프로입니다. 저학년들은 척척 준비하는 선배들의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눈을 빛내며 자신들이 보낼 시간들을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 기간에만 가질 수 있는 가족간의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며,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 교사 : 이어진 >

## 추석을 맞이하여

이번 추석은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추석은 주말을 끼고, 화요일 개천절 사이에 놓인 월요일은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갑자기 긴 휴식이 주어진 기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황금 같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무려 121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해외로 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 그동안 눌렀던 욕구가 폭발한 듯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해외여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 이년에 한 번쯤은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기본이 되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식구들과 아침 식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질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기본적인 삶의 안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디아코니아 사랑방이 지킴이를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보다 아늑한 성찬을 위해서 예배 대형을 성찬대를 중심으로 둥글게 배치하였습니다. 연휴 시작과 동시에 고향으로 친지 댁으로 출타하였던 디아코니아 식구들이 지킴이 시간에 맞추어서 속속히 도착하였습니다. 교육관 이곳저곳을 쓸고 닦으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다들 분주합니다. 특히 7세 쌍둥이들과 하민이가 현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비밀하는 모습에 어른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제법 눈썰미가 있고 꼼꼼하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비밀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고향에서 찌운 밤을 나누기도 하고, 고향 다녀온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주일 준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함께 성가대 찬양 연습도 하고, 뜻밖에 잘 부르는 솜씨에 약간은 놀라면서, 저녁 전에 일정을 다 마치고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한 탓에 허리 근육이 좀 빠근하기도 하지만, 내일 함께 할 사랑방 식구들을 생각하면 기분은 참 좋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어서 보름달을 볼 수가 없는게 하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달은 환하게 비치겠지요. 우리도 남은 한 해 추석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440, 531

성경 : 고린도전서 16장 13~18절

말씀 :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박해와 위협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세계 성찬주일을 위해>

세계 성찬주일은 성찬을 통해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는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사랑방공동체에 건강이 어렵고, 회복중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연휴기간동안 이동하는 지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추석명절을 맞아 오래간만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로 친지들이 오는 가정도 있고, 친지들을 찾아 먼 길을 오고 가는 공동식구들도 있었습니다.

긴 휴일 기간이지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예배 준비와 식사 준비로 디아코니아 사랑방 식구들은 모였습니다.

세계 성찬 주일을 맞아 성찬예식을 준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더욱 정성드려 청소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작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방의 모든 지체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두 손 모아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